



## 韓國索引界의 問題點과 研究成果의 檢討

朴 俊 植  
啓明大 專講

### I. 緒 論

現代社會의 주된 특징의 하나는 社會의 專門化現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社會構造가 傳統의인 社會로부터 工業中心, 나아가서는 情報化社會에로 轉換함에 따라 職業계층은 分化되고 各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專門의인 職務수행을 위해서 專門의 知識의 계속적인 供給을 바라게 된다. 이러한 要求는 결국 學問의 深化現象과 文獻情報의 生産量을 加速化시키는 주요한 要因이 되게 한다. 따라서 大量으로 生産되는 文獻을 적절히 調整하여 그 利用 可能性을 높여 주는 書誌的 統整事業이 절실히 요청되며 새로운 進展이 있어야 한다. 索引이란 결국 이러한 書誌業務의 한 分野로서 文獻情報의 需要者가 必要로하는 文獻을 신속 精確하게 제공해 주는 하나의 2次資料로서 全體 學問을 위해서 必須不可缺한 道具가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사정은 出版物의 增加率에 비해 書誌的 調整의 進展速度가 너무 느려 이미 生産된 文獻情報을 적절히 活用케 못하고 있다.

가장 주된 要因은 索引이 너무 적다는데 起因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索引發達史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理論的 基準이 確立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索引作業에 소요되는 時間, 經費, 努力등은 엄청난데 비해 市場(販路)이 너무 좁아 索引誌의 刊行이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미 出刊된 索引誌들도 利用者들의 効用性을 최대한 充足시켜 줄 만큼 完全한 상태에 있지 못하는데도 있다. 즉 收錄範圍(主題, 地域, 期間 등)나 排列方法, 刊行頻度등의 編輯方針에 있어서도 매우 不充分한 상태에 있음이 사실이다.

本考는 이러한 狀況을 진단하고, 既存 研究成果를 檢討하며 앞으로의 方向을 모색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과거 索引誌들이 취한 索引法의 發展過程을 概觀하고, 現代索引誌들의 特性을 分

析하며 지금까지의 研究動向을 理論的인 面과 實務的인 面에서 檢討하므로써 그 成果를 一見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索引界가 가진 問題點에 대해 살펴 보고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므로써 우리나라 索引界가 發展하는데 一助코자 하는 것이다.

本考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分野는 定期刊行物索引이다. 分野를 제한하는 이유는 索引의 種類<sup>1)</sup>가 워낙 다양하며 모두 檢討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II. 索引法의 發展過程

어느 時代에 어떠한 索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索引史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視角에서 筆者는 이미 論述하였기 때문에 本章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索引誌들이 취했던 方法的인 面 즉, 索引法에 대해서 重點을 두고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1970年代 이후에 대해서는 Ⅲ章에서 상세히 論述 될 것이기 때문에 本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A. 初期의 索引法(日帝時代—1950年代)

우리나라는 出版文化가 최초로 번성하였던 中國과 地理的으로 인접해 있다는 地形學의 特性과, 古來로 學問을 숭상하는 民族性때문에 中國에 못지않는 書籍文化를 꽃 피웠다. 따라서 많은 冊들에 대해 그 所在와 內容을 案内해 주는 다양한 檢索方法을 오래전부터 發展시켜 왔다.

筆者가 이미 展開해온 論理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索引史 研究는 書誌 및 目錄學史와 관련하여 古代의 佛書目錄에 까지 소급해서 그 淵源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2)</sup> 그러나 緒論에서 제한한 바대로 定期刊行物索引分野만 다루고자 한다.

1) 朴俊植. 索引에 관한 歷史的考察. 서울, 中央大學校大學院, 1975. pp. 15~22 참조(碩士學位論文)

2) 우리나라의 初期索引史에 관해서는 筆者의 前記論文을 參照하시오. Ibid. pp. 42~56

우리나라 定期刊行物(雜誌)의 始初를 1895年 2月에 創刊된 「親睦會會報」로 본다면<sup>3)</sup> (그 以前의 朝報, 會報, 個人的인 通信文 등으로 그 起源을 소급해서 고려할 수도 있다) 定期刊行物 索引은 당연히 그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筆者의 見解를 먼저 말 한다면 우리나라의 定期刊行物 索引은 製放 이후 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以前에도 索引이 있었으나 모두 外國人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기 보다는 그들의 恣意的인 活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sup>4)</sup>

外國人에 의한 索引作業은 주로 日本人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1910年 韓日合邦 이후 우리나라의 書誌作業을 많이 이루어 놓았으나 모두가 그들 자신의 必要性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나라의 書誌事業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이루어 놓은 書誌作業은 數的으로 보아 상당한 量에 이르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들은 대개가 오늘날의 索引에서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書誌的事項을 갖추지 못했으며 分類하는 方法도 分類式(分野도 몇개의 項目으로 나눈)이고 한 排列方法 이외에 다른 角度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自體索引을 첨부시키지도 않은 것들이다. 이들은 단지 어떤 特定分野의 研究에 필요한 資料만 모으는데 主要한 意味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實際的인 面에서 볼 때 많지 않은 資料를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方法으로 배열하거나 自體索引을 첨가시킬 必要性도 찾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취한 索引法은 製放 이후 우리나라의 索引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日人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活動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學者들의 典籍에 대한 整理作業은 거의 하지 못했다. 이는 순전히 日本人들의 압박에서 기인된다고 보여진다. 대라서 日帝가 우리나라를 統治하고 있던 36年間은 우리나라 索引史의 暗黒期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定期刊行物 索引은 1946年 國會圖書館報 2號에 게재되었던 「新刊雜誌 主要記事目錄」을 그 出發點으로 볼 수 있다. 이는 形式, 體裁, 排列方法 등에서 모범이 될만한 要素는 없지만 ‘처음으로’ 定期刊行物의 記事를 索引했다는 점에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후 1950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歷史學雜誌」所收國語 國文學關係 研究論文目錄”이 雜誌「論文」(2卷 2號)의 한 記事로 실리게 되었다. 이것은 「史學雜誌」에 收錄된 國語國文學關係 記事만 對象으로 하였다는 制限點이 있기는 하였으나 역시 索引史의 귀중한 文獻이다.

이후 1950년 6월부터 53년까지 계속된 한국동란과

그 이후 모든 方面에서의 피해에 대한 복구작업관계로 50년대 말까지 索引의 發展은 거의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 1950년에서 56년 사이에 刊行된 書誌類가 거의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立證된다.

50年代 후반의 유일한 索引은 金龍德氏가 「歷史學報」 10輯(1958. 9 pp. 329~340)에 게재한 「國史關係著書, 論文目錄(1945~57)」 뿐이다.

60年代 以前에 나온 索引의 特長적 현상을 몇가지 지적한다면; 첫째 獨立된 刊行物로 出刊되지 못하고 모두 定期刊行物속의 한 記事로서 다루어 졌다는 점. 둘째, 編成과 排列方法은 대개가 主題의 分野에 따라 分類排列(分類도 그 學問의 分類體系에 의하지 않고 다만 몇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形式을 취함) 한 다음 그 아래에서 論文名(때로 著者名) 順으로 排列하고 있는 점. 셋째, 定期刊行物索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書誌的 事項(著者, 論題, 誌名, 卷號, 年月, 收錄面數)이 不充分하고 順序가 전혀 統一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點 넷째, 分類索引이면서 著者名으로 檢索할 수 있는 索引을 부쳐 주지 않았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要約해서 말하면 讀者들의 檢索에 편리한 面을 고려하지 않고 索引作成者의 一方的인 方針에 따라 排列하였던 것이다.

### B. 1960年代의 索引法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 우리나라의 索引界는 상당한 變化를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量的인 面에서 60年代 전반(65年 까지)에 나타난 索引이 모두 19種에 이르고 있다.<sup>6)</sup> 이는 前代에 비해 팔복할 만한 증가현상이다. 또한 한 定期刊行物에 포함된 記事 또는 附錄으로서의 索引이 아닌 單獨刊行物로서의 索引出版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그 규모도 一時에 大型化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編成과 排列에 있어서도 傳統的인 分類索引에서 부터 벗어나 辭典體索引 즉 著者나 主題 (主題가 매우 細分된 小項目의 主題名 標目的 체택)를 혼합하여 하나의 가나다順 체제하에 배열하므로써 편리한 檢索方法을 도모하기도 했으며 辭典的 排列에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see reference 또는 cross reference도 나타나는 이른바, 완전한 형태의

3) 金根洙編著.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總目次集. 서울, 中央大永信아카데미, 1973. p. 13

4) 洪以燮. 韓國關係歐文書誌小論. 東方學志 11집, 서울, 延世大 東方學研究所, 1970. p. 273

5) 細部的인 書誌的事項은 다음 文獻을 參照하시오. 姜周鎭. 韓國書誌의 近況과 課題. 도서관 Vol. 30, No.3 (1975. 3) pp. 9~11

6) 崔昌均·韓國의 定期刊行物記事索引誌에 대한 概觀의 研究. 서울, 延世大 教育大學院, 1972. 11. p. 5 (碩士學位論文)

索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高度한 索引들은 극히 소수이며 이들은 또 編輯過程에 있어서 館界의 專門家들이 참여한 結果이다. 이외의 많은 索引들(주로 主題索引)은 여전히 記事 또는 附錄으로 실리고 있고 分類나 排列方法, 編成體裁 등에서 發展하고 있는 樣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各 主題分野의 研究者들은 그들의 研究成果를 모으고 그것을 相互交流하는 目的下에서 索引作成을 위한 專門의인 知識이 전혀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利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努力이나 時間같은 것은 考慮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索引法의 高度의 基準을 이룩한 몇가지의 索引誌에 대해서 그들이 취한 索引法의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中央大學校 教育學會에서 1960년에 刊行한 「韓國教育目錄」I輯은 전혀 새로운 排列方法을 채택하여 韓國의 索引史에 있어서 주요한 轉機를 마련했다. 이 책은 수록범위를 1945~1959년 까지의 單行本 및 定期刊行物의 記事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定期刊行物의 索引으로서 처음으로 主題를 細分하여 小項目을 채택하고 이를 著者名과 혼합하여 하나의 가나다順에 따라 排列하였으며 主題下엔 著者名, 그 아래엔 年度順으로 배열한 革新的인 索引이었다. 또한 小項目을 中心한 排列體系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卷末에 大項目을 中心하여 이들 小項目을 再組織하여 그 項目이 위치한 所在을 지시해주는 主題索引을 첨부시켜 그 效用성을 더욱 높였다. 그리고 本文의 項目과 관련있는 項目으로 연결시켜주는 相互參照法을 사용함으로써 索引의 利用價値를 더한층 높여 주고 있다.

이 方法은 당시 美國에서 盛行하던 辭典體排列方法의 長點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索引史에 있어서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계속 刊行되고 있는데 최근판에서도 I輯의 編輯方針을 그대로 固守하고 있다.

한편 韓國圖書館協會에서도 定期刊行物의 索引이 重要함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圖書館界와 學界의 重鎮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1960년에서 6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모든 主題의 定期刊行物 記事論文을 모아 1963년부터 64년 사이에 걸쳐 「學術雜誌—索引」1960~62」을 出刊했다.

이 책은 前記 「韓國教育目錄」과 유사한 形式의 排列方法을 취하고 있다. 즉 모든 主題分野에 있어서 主題名標目を 選定하고 이를 著者名과 더불어 가나다順으로 배열한 辭典體 形式이다. 이 冊에서 채택한 수많은 主題名標目は 1961년 간행된 李載喆 教授의 「主題名

標目表」<sup>7)</sup>와 이것의 理論的 근거인 1959년의 「主題名目錄의 研究」<sup>8)</sup>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學術雜誌—索引」의 경우도 see reference와 see also reference를 많이 活用 하므로서 관련있는 項目을 많이 연결시켜 보도록 했는데 이는 主題名標目에 대한 理論的 바탕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高度한 索引法으로서 당시 많은 索引誌들의 모범이 되었다. 「學術雜誌索引」은 協會의 事性으로 계속 刊行되지 못하고 그 후에 國會圖書館으로 그 事業이 移管되었다.

國會圖書館은 이를 이어받아 1945년부터 1959년까지 소급하여 索引하여 「國內刊行物記事索引」1945~1957, 1958~1959」로 刊行하였고 1963년부터 68년 까지는 問題下에 遂次的으로 刊行하였으며 그 이후 부터는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이라는 題名으로 지금까지 季刊으로 계속 간행되고 있다. 그러나 國會圖書館의 索引作業은 努力과 時間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學術雜誌索引의 編成方針을 따르지 않고 獨自의인 主題名標目表를 만들어 分類排列 하므로서 前代의 良法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했다. (「정기간행물 색인」에 대해선 다음장에서 상세히 論述된다)

이 외에 60년대 전반엔 각 주제분야의 索引들이 다수 나왔는데 대부분 한 定期刊行物의 一部에 포함되는 형식이었고 單獨刊物로 나온것은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索引들은 그 方法的인 면에 있어서 대개 分類索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索引法의 새로운 基準을 確立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여기서 그들의 書誌的 事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간행된 색인은 모두 29종<sup>9)</sup>에 이르고 있지만 「韓國教育目錄」과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을 제외하고는 索引에 대한 理論的 背景 및 作成法에 대한 基礎知識을 갖추고 만들어진것은 거의 없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索引史에 있어서 중요한 한가지 問題點을 發見하게 된다. 즉 解放 이후 부터 1970년에 이르기 까지 索引法의 高度한 基準을 갖추고 있는 索引은 2~3種밖에 없고 나머지는 作成者의 個人的인 방식에 따라 基準이 없이 만들어 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의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는 索引에 대한 理論的인 體系 또는 索引法의 基準을 成就시키기 위한 研究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索引들이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索引에 대한 研究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기초적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또 1970년이

7) 李載喆. 주제명표목록. 서울, 연세대 圖書館學科, 1961.

8) 李載喆. 主題名目錄의 研究. 서울, 연세대 圖書館學科, 1959.

9) 崔昌均. op. cit., p. 5

전에 만들어졌던 索引의 대부분은 館界의 專門家가 만든 것이 아니라 各主題分野의 研究者들이 당시의 必要性에 따라 적당한 형식으로 만들었으므로 대부분의 索引들이 아무런 기준도 이루지 못했고 索引法上으로는 아무런 기여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 Ⅲ. 最近 索引誌들의 現狀과 問題點

#### A. 綜合索引分野

綜合索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國會圖書館에서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다. 이는 이 分野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 간행되고 있는 (季刊) 現刊索引으로서도 唯一하다.

이 索引은 소급적인 文獻情報 및 現刊情報에 대해서 신속하게 檢索하기를 원하는 많은 要求者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 1800年代 中반 미국의 *poole's index*가 처음 나왔을 때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던 것과 다름없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現刊綜合索引이 전혀 없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계속적인 索引事業을 전개하므로써 이 분야를 개척하는데도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索引은 自體의 몇가지 결함때문에 그 効用性이 半減되고 있으며 利用者의 要求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결함사항의 중요한 면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排列方法이다.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分類索引의 배열형식을 취하고 있다. 分類索引의 長點은 한 主題分野 (넓은 의미의 主題)가 한 곳에 모여 排列되고 있으며 編輯이 容易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利用者측에서 보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주제가 어느 분야에 배열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主題分類에 대해 檢討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편이 있다. 또 하나의 主題名標目 아래 너무 많은 文獻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 檢索에 소요되는 時間과 努力은 얼마나 큰가(실제로 한 標目下에 50項目 이상의 자료가 수록되는 예가 많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複合主題의 경우 檢索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學問의 專門化 現象은 결국 各主題間의 重複현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문헌이 題目 및 內容에 있어서 二重性을 띠고 있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중점을 뒀다고 생각하는 (대개 作成者의 判斷에 좌우되는) 分野에 넣을 것이므로 채택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兩主題에 나누어 실는 방법도 고려해 볼직하다.

셋째, 筆者名에 의한 檢索方法이 고려되지 않고 있

다. 分類索引에 있어서 筆者名索引은 完全히 必須的이다. 이를 補完하기 위해서 年末의 마지막 號에서 筆者索引을 收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방법이 못된다고 본다.

네째는 現刊索引(current index)으로서 가장 重要한 要素인 累加索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外國의 많은 索引誌들이 月刊·隔月刊, 季刊일 경우 반드시 이를 모두 종합하여 年間 累積版을 만들고 또 몇년이 지나면 2,3 또는 5年을 單位로 하여 계속 累積版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안다.

만일 現行대로 라면 5年치를 소급해서 보고자 할 때 꼭 같은 主題에 대해 20책(번) 이상이나 檢索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索引의 근본목적은 所在指示에 있고 그 方法은 「時間과 努力의 절감」에 두어야 한다. 이 基本理念이 무시될때 곧 利用者와의 거리감만 자꾸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累積版은 단순한 綜合版만 아니고 分野別 累積版이 되도록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刊行頻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다. 現行索引(current index)은 速報性에 중요한 意義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대로 라면 1976년 7-9호 '76년 12월말에 발행되고 이것이 利用者에게 임혀지는 것은 1월이 되어야 한다. 즉 7월호에 나온 記事는 1월이 되어야 檢索할 수 있으므로 무려 7개월이 경과한 뒤 얻어지게 되는 셈이다.

季刊이라는 刊行頻度 自體에 큰 문제점이 있지만 編輯에 소요되는 時間도 너무 긴것이 사실이다. *Reader's guide* 같은 것은 月刊의 경우 5日에서 다음달 5日까지를 수록해서 10일에 出刊한다. 얼마나 신속하게 발행되는가? 이러한 방법을 본받기 위해서는 一貫되고 專門化된 作業過程이 뒤따라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이다.

學問을 研究하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情報을 원하는 사람들은 國會圖書館의 여러가지 機能중에서 國家書誌의 발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學術活動의 基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書誌作業 가운데서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이 중심이 되어 왔고 또 이것은 館界와 전체 學界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効果的인 方法, 더 새로운 方法을 開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 B. 主題索引分野

최근에 간행된 主題分野의 索引으로서 收錄範圍나 索引方法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몇가지가 있다. 그것은 前述한 「韓國教育目錄」과 國立中央圖書館의 「學術論著總合索引」, 高대 民族文化研究所의 「韓

國論著解題」 및 書誌學索引인 諸洪圭 編「韓國書誌關係文獻目錄」, 朴俊植 編「韓國圖書館學關係文獻索引 1945~1974」 등이다.

「韓國教育目錄」의 長點과 學界의 意義에 대해서는 앞章에서 충분히 論及되었다. 이용상 생길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굳이 논급한다면 한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다. 먼저, 이 索引은 너무 細分된 小項目 中心으로 標目을 채택했기 때문에 유사한 또는 동일한 主題가 分散되어 연관자료를 함께 검색하는데 조금 不便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독서지도」라는 標目다음에 「독서회」 「독서흥미」 등의 標目이 나오고 독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독일-교육」 「독일어 교육」 「독일어 교과서」 등의 標目이 나오고 「독해력지도」 「독해력평가」 등의 標目이 나오게 되며 독서지도와 동일한 주제인 「독후지도」란 標目은 원래 類似性의 集合性이 클수록 同一-主題 또는 聯關主題의 檢索을 容易하게 해 준다. (그렇다고 大項目 中心은 한 標目에 너무 많은 items이 모이게 되어 더욱 불편하다) 細分된 小項目 中心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卷末에 大項目下에서 다시 小項目別 索引을 붙여주고 있으나 利用者가 그 主題名 標目の 體系를 곧 理解하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매우 枝葉的인 問題이지만 See reference와 See also reference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부호로서 index finger를 그려 넣고 있어 약간의 혼란이 예상될 수도 있으며, 複合主題의 記事인 경우 나누어 收錄하는 방법도 고려 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辭典體 索引의 중요한 長點이다).

이러한 部分的인 問題點이 있더라도 이 索引은 우리나라 索引法에 있어서 辭典體形式을 최초로 試圖 (그 어렵고 복잡하고 時間과 努力이 많이 드는) 하므로써 우리나라 索引法의 現代化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음은 높이 評價될 만하다.

國立中央圖書館에서 편찬 발행하고 있는 「學術論著 總合索引」은 현재까지 모두 5輯까지 出版되어 있는데 每年 한 主題分野씩 간행하고 있다. 이는 國立中央圖書館의 書誌作業으로서 가장 방대하며 利用者도 많다.

이 索引은 分類索引의 形式을 취하고 있는데 KDC의 分類體系에 基礎하여 大項目으로 나누어서 그 아래에 著者名順으로 배열하고 있다. 大項目은 類似하거나 關聯있는 項目이 한곳에 모이는 利點이 있으나 이 索引은 과거 30년 이상의 文獻이 한곳에 累積되어 있으므로 한 標目아래 300여 items이 모여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 檢索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學位論文을 별도로 하여 著者名順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有用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索引 基本部의 主題領域속에 포함되는 것이 效果의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效用性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凡例가 너무 상세하게 적혀 있어 本文을 보기도 전에 「이 索引은 이용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려 버리거나 않을지……

問題點은 刊行方法에도 있다. 현재와 같은 方法으로 全主題分野에 대한 索引을 完刊한다면 적어도 15년은 잡아야 한다. 그러면 15년동안 이미 나와 있는 主題分野에 대한 최근의 文獻을 입수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結論을 말한다면 이미 出刊된 分野에 대해 每年 補遺篇을 내어 배포하고 그것을 5년 정도의 단위로 累積시키므로써 既存 出刊分野가 계속해서 최신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高大 民族文化研究所의 「韓國論著解題」는 이보다 앞서 刊行된 「韓國圖書解題」의 계속판으로서 1910년 이후의 學術業績(單行本과 論文)을 分野別로 解題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으나 索引法上으로는 論及할 만한 價値를 갖고 있지 못하다.

한편 諸 洪圭氏가 최근 편찬한 「韓國書誌關係文獻目錄」<sup>10)</sup>은 1900년 부터 1975년 까지의 우리나라 書誌學을 총정리한 것으로서 이 分野의 研究者들에게 많은 週及的인 書誌的 情報源으로서 공헌하고 있다. 이 索引은 排列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앞의 다른 索引에서도 前述한 바와 같이 한 主題類를 너무 넓게 잡았기 때문에 (모두 6類) 한 類속에 매우 많은 文獻이 나열되어 檢索에 많은 時間과 努力을 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著者名, 書名(單行本의 경우) 索引을 붙이지 않아 역시 利用에 不便한 면이 있다.

筆者가 編한 「韓國圖書館學關係文獻索引, 1945~1974」<sup>11)</sup>은 해방 이후 1974년 까지 우리나라 圖書館學의 30年을 整理해 보자는 意圖에서 만들었다. 이 索引은 大項目 中心과 小項目 中心의 短點(앞에서 部分的으로 論述됨)을 고려하여 中項目 中心으로 標目을 채택하고 한 標目아래에서 文獻이 많을 경우 다시 小項目으로 細分시키고 主題名 標目を 著者名과 혼합하여 (저자명이 없는 것은 記事名) 辭典體式으로 배열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索引法의 高友한 기준을 이룩한 미국의 Wilson社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索引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을 채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標目아래 너무 많은 文獻이 모일 수 없고 小項目 中心과 같이 同一, 聯關主題가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10) 諸洪圭編. 韓國書誌關係文獻目錄. 서울, 景仁文化社, 1976. 351p.

11) 朴俊植編. 韓國圖書館學關係文獻索引, 1945~1974. 大邱, 慶北圖書館學會, 1976. 311p.

또한 See reference와 See also reference를 많이活用하여 인접주제를 연결시키고 복합주제를 나누어 실는 방법을 채택하므로서 多角의인 檢索方法을 試圖하고 있다. 編輯 당시의 構想으로는 索引理論과 索引法을 對대한 적용하여 完備한 索引의 模型을 만들어 보급자하였으나 未備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원래는 每年 補遺版을 만들어 配布하고 이를 5年 單位로 累加시켜 계속 發行할 계획이었으나 그 作業이 容易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最新性을 유지하는 데에는 失敗하였다고 본다.

여기서 論及되지 않는 主題索引 가운데서 有用한 몇 가지가 더 있으나 紙面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主題索引이 索引法에 대해서는 論及할 價値가 없을 만큼 水準以下의 것들이다. 索引編輯過程에서 圖書館界의 專門人들이 참석한 경우는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는 이용상의 특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아서 정리하였다’는데 意義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 구체적인 內容을 간단히 들여보면 이미 앞에서 論及한 問題點들 이외에 不確實한 書名, 明確하지 못한 收錄範圍, 未備한 凡例, 不充分한 書誌의事項, 一貫性 없는 編輯過程 등에서 索引法의 基準에 이르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C. 索引誌刊行에 대한 問題性的 檢討

이상에서 國內의 重要한 現代索引誌들의 意義와 部分的인 問題點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章에서는 우리나라 索引誌의 刊行에 대한 전반적인 問題點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索引誌들을 評價했을 때 나타나는 問題點은 대개 다음과 같은 要素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索引作成에 대한 基礎的인 理論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몇종의 索引을 제외한 大部分의 경우 索引의 意義나 機能등의 本質的인 問題에서부터 作成을 위한 過程을 모르고 작성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排列에는 어떤 種類가 있으며 각각의 長短點은 무엇인가? 分類排列時 分類는 어떻게 하고 어떤 種類의 自體索引이 있으면 效果的인가? 辭典體排列을 위한 作業過程은 어떠한가? 利用者의 時間과 努力을 줄여 주는 檢索方法은? 등등에 대한 基礎知識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索引이 너무 많은 것이다.

둘째는 國立·國會 兩 圖書館이 索引誌刊行에 있어서 전혀 연결되는 作業過程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兩 圖書館은 모두 國立圖書館이며 모두 國家書誌의 發行과 配布의 機能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兩館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索引誌를 刊行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은 分野別 週及의 索引을, 國會圖書館은 綜合主題로서의 現行索引을 發刊한다. 이 基本的인 方向은 좋으나 서로간에 情報를 交流하면서 作業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兩館이 索引誌 刊行의 相互協助를 合議하고 共通된 分類表를 作成하여 國會圖書館에서 季刊索引誌에 소요된 카드를 國立中央圖書館에 보내고 國立에서는 이것을 基礎로 하여 分野別年間 累積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5년쯤의 기간을 두어 分野別로 또 累積시킨다면 예산, 시간, 경비, 인력 등의 상당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셋째는 排列方法에 관한 것이다. 索引의 排列은 辭典體式과 分類式으로 大別된다(다른 방법도 있으나 별로 쓰이지 않는다)이 두가지는 각각 長短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채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辭典體式이 가장 效果的이라는 사실은 이미 一般化되어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이나 國會圖書館은 個人이나 團體가 發行하는 索引과는 次元이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辭典體式이 時間, 經費, 人員, 努力 등이 分類式에 비해 훨씬 부담이 크더라도 試圖해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利用者들이 모두 그 방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國立的 圖書館에서 모범을 보일 必要性도 있으며 그렇게 하므로서 讀者對象이 넓은 그들의 索引法을 많은 分野의 索引作成家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累加索引 또는 補遺篇에 대한 것이다. 앞의 代表的인 索引誌를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索引은 모두가 이 點에 있어서 失敗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年間 累積版을 발행 못하고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學術論著總合索引」이나 기타의 모든 主題索引들이 年間 補遺篇을 내지 못해 最新性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兩大 國立圖書館에서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의 問題點은 많은 索引들이 記述形式에 있어서 統一性을 缺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열거, 論評된 索引들은 完全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統一된 形式(특히 書誌의事項의 記述順序에 있어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索引誌들은 그렇지 않으며 한 책에서도 一貫性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索引利用者들이나 一線司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要因이 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筆者는 몇년전 국회도서관보에 「記事索引作成의 標準化를 위한 試論」이란 글을 기고하여 記述形式 만으로도 國內的인 統一化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sup>12)</sup>

12) 朴俊植, 記事索引作成의 標準化를 위한 試論, 국회도서관보 Vol. 12, No. 7 (1975. 10~11合) pp. 10~17

## N. 研究成果의 檢討

索引分野의 研究面은 두가지 角度에서 考慮될 수 있다. 그 하나는 索引에 대한 理論的 體系化를 目的으로 한 純粹理論分野이고, 다른 하나는 索引의 作成方法이나 記述形式의 標準化를 目的으로 한 實務的인 分野이다. 이 두 가지面을 章을 달리하여 살펴 봄으로써 과거 우리나라의 索引에 관한 研究成果가 어떠 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A. 索引理論 分野

索引에 대한 理論的인 研究結果는 매우 적은 형편이다. 불과 몇편의 文獻을 열거할 정도로 빈약하다.

索引의 理論的 研究는 앞章에서 약간 論及되었던 李載喆教授의 「主題名 目錄의 研究」(1959)와 「主題名 標目表」(1961)를 먼저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本質的인 面에서 볼때 索引에 관한 理論은 분명히 아니다. 이 두 가지의 業績은 圖書館의 主題名 目錄에 대한 理論的 基礎(主題名 目錄의 研究)와 實際 적용을 위한 table(主題名 標目表) 이지만 이 方法論과 表는 綜合索引을 辭典體 形式으로 排列하는데 있어서 必須不可缺한 要素가 된다. 즉 主題名 標目を 選定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子母順으로 배열 할 수 있도록 하여 辭典體排列方法을 가능하게 했고 檢索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相互參照法(See reference와 See also reference)에 대해서도 高度이 基準을 提示한 研究라고 評價된다.<sup>13)</sup> 실제로 本 研究는 1963~64년에 나타난 「學術雜誌索引」이 편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순수한 索引에 대한 理論的 研究는 이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후에 나타난다.

李鳳順教授는 1969년 國會圖書館報에 “索引小考”<sup>14)</sup>라는 記事를 寄稿했다. 이 論文은 索引의 ABC라고 할만큼 索引의 必要性이나 類型, 機能등에 대한 論說로서 당시, 索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최초의 試圖라고 볼 수 있으며, 일선 司書들의 索引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었고 索引理論에 대한 活路를 열어 놓았다는데에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한편 沈喞俊 教授는 索引에 대한 學界一部分의 관심을 보고 이를 支援하기 위해 中國 「新時代」紙에 발표된 鄭恒雄의 論文 「中國索引 發達史略」을 번역하여 發表하였다.<sup>15)</sup> 이는 전통적인 中國의 索引이 發展해온 過程과 現代의 西洋索引法에 의한 索引誌 刊行機相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는데 특히 中國의 傳統的인 索引과 索引法에 대해 概觀하는데 좋은 資料가 된다.

本格的인 索引에 대한 理論的 探究는 1970年代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첫 試圖가 1975년 筆者의 拙稿 「索引에 대한 歷史的 考察」이다. 이 論文에서 著者는 “우리나라의 索引에 대한 理論的 研究는 아직 그 基礎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sup>16)</sup>고 前提하고 索引을 하나의 獨立된 學問 對象에 올려놓고 그것을 理論的으로 體系化하고 發展過程을 살피고 있다.

이 論文은 크게 보아 3章으로 大別되는데 I章에서 索引의 語源과 現代의 意義와 機能 및 重要性을 밝히고 있고 II章에서는 索引의 類型을 體系化 하고 이를 類型別로 나누어 그 特性을 論述하고 있다. 그리고 III章에서는 索引의 發展過程을 西洋, 中國, 韓國으로 나누어 概括的으로 考察하고 있다.

모든 學問을 研究하는데는 일정한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구하고자 하는 分野에 대한 精確한 개념의 定立과 意義의 評價, 또 그것의 發展過程을 探究하여 學問的 體系를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學問的 體系위에서 現況을 살피고 未來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 學問研究의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論文을 우리나라 索引研究의 理論的 體系化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을 줄 믿는다.

1976년에는 梨花女子大學教育大學院(司書教育 專攻)에서 朴文子氏가 「우리나라 索引誌에 대한 研究」<sup>17)</sup>라는 論文을 발표하였다. 朴文子氏의 論文은 우리나라 索引誌의 現況을 分析하는데 주요한 目的을 두고 있으나 論文의 앞 部分에서 理論的인 面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意義를 論及하고자 한다.

이 論文은 緒論部分(pp. 2~4)에서 索引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있고 II章 理論的 背景에서 西洋의 索引史(pp. 6~11)에 대해 간략하게 概觀하고 곧이어 우리나라의 索引史를 解放 이후 부터의 索引誌를 中心하여 간단히 論述하고 있으며 (pp. 11~14) 索引의 種類에 대해서도 說明을 加하고 있다. (pp. 14~17)

이 論文은 索引研究의 理論的 體系化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지만 II章에서 外國의 索引誌들에 대한 現況을 一見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의 外國에서의 索引誌에 대한 眼目과 識見을 높여 주었다. 이 論文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다음章에서 다시 論及된다.

그 다음의 연구로는 筆者의 「西洋索引과 索引法의

13) 朴俊植. 索引에 관한 歷史的考察. op. cit., p. 52

14) 李鳳順. 索引小考. 國회도서관보 Vol. 6, No.(1969.9) pp. 9~13

15) 鄭恒雄著, 沈喞俊譯. 中國索引의 發展過程. 도서관 Vol. 30, No. 1 (1975.1) pp. 53~58

16) 朴俊植. 索引에 관한 歷史的考察. op. cit., p.5

17) 朴文子. 우리나라 索引誌에 대한 研究. 서울, 梨花女大 教育大學院, 1976. (碩士學位論文)

發展過程」<sup>18)</sup>이 있다. 이 論文은 1977年度 啓明大學校 教授研究費의 計劃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圖書館學論集」4輯(pp. 131~194)에 發表 되었다. 筆者의 前記 先行研究(索引에 관한 歷史的 考察)가 索引에 대한 理論的 體系化는 試圖했으나, 歷史를 다루는 章은 東·西洋에 있어서 各 時代의 主要한 索引들을 年代順으로 概觀하는 기초적인 것으로서 主要한 索引들이 취한 索引法에 대한 研究나 그것이 後代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는 論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研究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 論文은 緒, 結論을 제외하고 모두 6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各章의 題目만 보면 I. 索引의 起源, II. 筆寫本 時代의 索引과 索引法, III. 印刷文化와 索引法의 基礎定立, IV. 圖書에 대한 索引의 發展과 礎立, V. 定期刊行物·索引의 出現과 發展, M. 現代索引法의 確立 등이다.

이 論文은 근본적으로 단순한 索引의 歷史가 아니고 索引 및 各 索引이 취한 索引方法이 時代를 거쳐 오면서 어떻게 發展 또는 分化해 왔는가에 대한 歷史的 研究이다. 이 論文의 基本的인 目標은 西洋索引法(또는 索引)과 우리나라 索引法(또는 索引)과의 相互關聯性을 比較 研究하기 위한 資料를 提示하는데 있다. 특히 現代의 西洋索引法은 理論的인 面이나 方法的인 面에서 우리나라의 索引法에 상당한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나라와 西洋索引法을 比較 研究하기 위한 前提로서 西洋의 索引과 索引法의 發展過程을 밝히는 일은 꼭 必要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索引理論에 대한 研究成果는 이상과 같이 극히 制限된 사람이 제한된 論文을 發表해 왔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索引에 대한 理論的 基礎가 確立되었다고 自負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더 많은 研究者들이 더 깊이 있는 主題에 대해 研究에 참여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 B. 索引法에 관한 分野

索引法에 관한 研究分野는 1966년 國立中央圖書館의 索引實務를 위한 하나의 指針書로서 발표된 尹炳泰教授의 「계속 간행물의 색인작성에 대하여」<sup>19)</sup>라는 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記事는 索引作成의 意義, 作成의 過程, 記載事項과 記述形式 및 分類作業등, 일선사서들이 실제 작성하는 方法과 過程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이 記事는 아마도 당시의 索引作成者(自家索引 및 單行本索引)의 들에게 그들의 作業을 위해 하나의 基準을 제시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당시 索引法에 관한 文獻은 거의 없었고 비교적 희

근에 와서 索引法에 관한 몇가지 論文이 나왔기 때문이다. 索引作成法에 관한 文獻은 前述한 朴文子氏의 論文에서도 一部가 言及되어 있다. (pp. 18~22)

1968년에는 崔昌均氏가 「國內索引誌에 대하여」<sup>20)</sup>라는 記事를 發表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刊行된 主要한 索引들을 열거하고 6種의 索引法들을 선정하여 Louis Shores의 checklist를 참고로 간단히 평가하고 있다.

崔昌均氏는 이러한 作業을 바탕으로 하여 1973년에 「韓國의 定期刊行物記事索引誌에 대한 概觀的 研究」<sup>21)</sup>라는 學位論文을 내놓았다. 이 論文은 製放以後부터 1972년 8월 까지 우리나라에서 刊行된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지를 열거하고 이를 點檢基準에 따라 分析調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索引誌가 製放 이후 어떠한 形式으로 만들어져 왔는가에 대한 實證的인 樣相을 볼 수 있다. 그의 調査結果에 따르면 基準에 어느정도 이르고 있는 것은 몇 종류의 索引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는 또 한번 理論的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効用性이 높은 索引이 만들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論文은 앞으로의 索引誌 編成方針에 대한 하나의 座標를 提示했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겠다.

이와 同一한 次元에서 고려될 수 있는 論文은 前述한 朴文子氏의 「우리나라 索引誌에 대한 研究」이다. 崔昌均氏의 論文이 우리나라의 定期刊行物 記事索引誌들에 대한 調査·評價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論文은 우리나라에서 각종 索引들의 發刊 狀況을 類型別로 나누어 概觀하고 있다, 製放이후 우리나라 索引誌들의 發刊近況과 특징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有用한 資料가 될 것이다.

索引作成의 記述形成에 관한 것으로는 筆者의 「記事索引作成의 標準化를 위한 試論」<sup>22)</sup>이 있다. 이 寄稿文은 우리나라의 索引誌들이 記述形式에 있어서 전혀 統一된 方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索引作成家들이나 一線司書들, 그리고 索引利用者들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標準化된 案을 채택하여 學術情報를 効果的으로 活用하고자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 標準化 試案은 어디까지나 試圖的인 것으로서 館

18) 朴俊植. 西洋索引과 索引法의 發展過程. 圖書館學論集 4집, 慶北圖書館學會, 1977. pp. 131~194.

19) 윤병태. 계속간행물의 색인작성에 대하여, 도서관 108號(1966. 8) pp. 27~29 109號(1966. 9) pp. 12~15

20) 崔昌均. 國內索引誌에 대하여. 圖書館學報 1집, 中央大圖書·學科, 1968. pp. 28~33

21) 崔昌均. 韓國의 定期刊行物記事索引誌에 대한 概觀的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教育大學院, 1973.

22) 朴俊植. 記事索引作成의 標準化를 위한 試論. 국외도서 관보 Vol. 12, No. 7 (1975. 10~11 합병호) pp. 10~17



界의 標準化規定)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索引法에 관한 研究分野와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나 「도서관」誌 1972년 8월호에 게재된 成宅慶氏의 寄稿文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에 대하여」라는 글은 國會圖書館에서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의 편집상의 애로점에 대해서 솔직한 記述을 하고 있다.

실제로 成宅慶氏는 「정기간행물 기사색인」<sup>23)</sup>을 創刊할 때 부터 오늘날까지 십수년을 몸바쳐 왔으며 우리나라 索引事業을 發展시켜온 主役의 한 사람이다. 이 索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늘날까지 발전시켜 온 것은 그의 보이지 않는 노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Ⅲ章에서 제시된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成宅慶氏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더 나은 方法도 알고 있으면서 館自體의 사정으로 인해 확대시키지 못하는 心情을 이 寄稿文中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몇가지 方法的인 研究結果들이 있으나 주로 機械的 索引法이나 新聞索引法등에 관한 것이므로 本考에선 論及하지 않기로 한다.

V. 앞으로의 課題 — 結論을 접하여 —

이상에서 우리나라 索引界가 지닌 전반적인 問題點과 既存 研究成果를 檢討해 보았다. 結果, 앞으로 우리나라 索引界의 課題를 대개 다음과 같은 몇가지 要素로 集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1. 既存索引誌들이 編成體制를 改善할 必要가 있다.

國會의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은 신속한 文獻情報의 제공을 위해 月刊으로 하고, 每號마다 筆者索引을 첨부하며, 年間綜合累積版과 分野別 累積版을 만들어 준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分類方法은 現在의 방식이라도 큰 불편은 없으나 점차 辭典體式으로 改編하기 위한 計劃을 수립해 줬으면 한다.

한편 國立의 「學術論著總合索引」은 主題를 좀더 分化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既存 分野에 대한 年間 補遺篇을 만들어 준다면 最新性を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의 協力體制의 形成이다.

上記 分野別 累積版과 年間補遺篇計劃은 실제 증부되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또 兩館이 獨立된 line을 가지고 索引事業을 전개하기 때문에 넓은 안목으로 볼 때 불필요한 낭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筆者는 兩館이 分類方式를 統一하고, 國會가 月刊 現行索引을 만들고, 여기 소요된 카드를 기초로 하여 國立은 年間綜合 및 分野別 累積版을 만들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案은 現在의 人員, 經費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우리나라 索引事業을 새로운 次元으로 올려 놓게 될 것이다.

3. 圖書館協會이 調整機能이 要望된다.

우리의 圖書館協會는 「學術雜誌索引」 이후 索引界의 發展을 위한 어떠한 基準도 이루지 못했고 調整하는 역할도 해 오지 못했다. 索引界의 發展을 위해 協會가 해야 할 몇가지 일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協會은 索引事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館界의 여론을 모으고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索引問題를 全國圖書館大會이 中心 theme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協會는 本質的으로 學術活動이 目的이 아니라 이러한 機能이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처음 美國이 Poole's index에 대해 ALA가 年次總會의 中心 theme로 삼아 이의 성공적 성취를 조장해준 사실이나 Wilson社의 索引誌에 대한 助言을 目的으로 하는 The Committee on Wilson Indexes를 조직하여 그 機能을 合理化시켜 준 事實에 대해 우리 協會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이라고 본다.

索引이 圖書館大會의 中心 theme이 된다면 一般적 관심의 증대는 물론 많은 案들이 제시될 것이며, 여기서 國家的 索引事業을 위한 시스템(예를들면 國立, 國會의 協力制度)의 開發을 위한 決議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協會는 무질서한 記述形式을 통일시키기 위한 어떤 基準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基準을 筆者가 1976년 全國圖書館大會의 主題發表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協會의 調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協會의 書誌分科委員會를 活用하거나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標準案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더 부연한다면 書誌分科委員會의 活動範圍가 너무 넓고 索引事業自體가 重要하기 때문에 索引分科委員會를 獨立하여 설치하는 것도 이 分野이 發展을 위해 바람직하리라 믿는다.

4. 研究面이 더 擴大 深化될 必要가 있다.

Ⅳ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分野의 研究成果는 아직 미천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상호간에 學術情報를 交流하므로써 더 깊이 있는 研究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良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에서 이 分野에 대한 教授領域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 × ×

너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글이라 體系가 없고 이 글이 性格상 先行業積에 대한 評價가 불가피하였고, 筆者 자신의 研究結果가 가끔씩 言及된 事實을 충수스럽게 생각한다. 이 特輯을 계기로 우리나라 索引界가 발전할 수 있는 轉換點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3) 成宅慶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에 대하여. 도서관 Vol. 27, No. 8 (1972.8) pp. 27~34